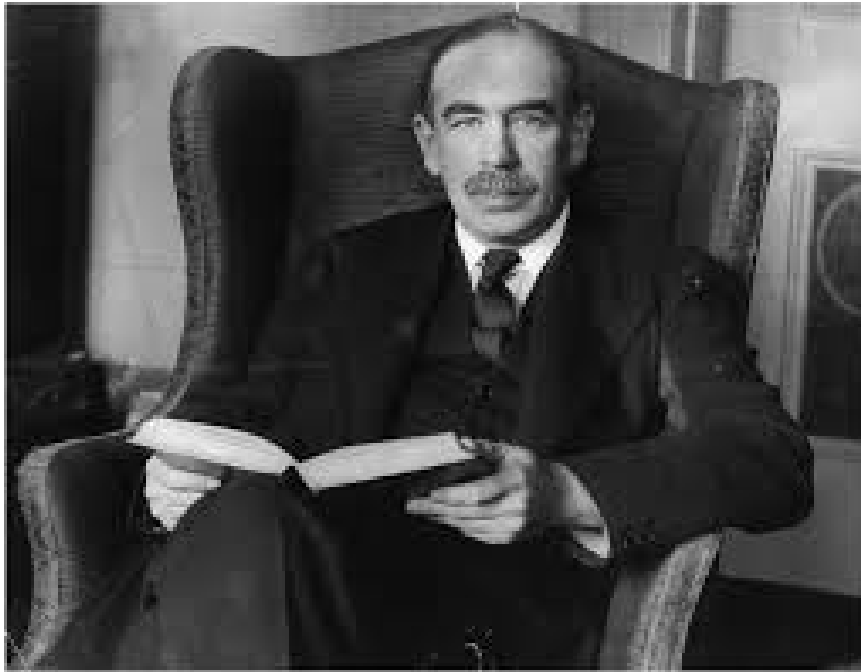


우리 손자 손녀들이 누리게 될 경제적 가능성

Economic Possibilities for our Grandchildren

John Maynard Keynes(1930)

번역: 홍기빈



I

우리는 지금 경제적 비관주의에 지독한 공격을 당하고 있다. 19세기를 특징지었던 엄청난 경제적 진보의 시기는 이제 끝났으며, 생활수준의 급격한 개선은 이제 정체되고 있으며 - 최소한 영국에서 - 앞으로 펼쳐질 10년 동안에도 물질적 번영은 쇠퇴의 길로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어디서나 들을 수 있다.

나는 이러한 생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아주 엉뚱하게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는 지금 고령으로 인한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빠른 변화에서 오는 성장통을 앓고 있는 것이며, 한 경제적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경제적 시대가 시작됨에 따라 거기에 적응해 들어가는 아픔을 겪고 있는 것이다. 기술적 효율성의 증대가 너무 빨라 그 과정에서 튕겨져 나오는 실업을 해소할 수 있는 속도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또 생활수준 또한 좀 심하다 싶은 만큼 빠르게 신속하게 개선되고 있다. 세계적인 은행과 통화 체제의 작동으로 인해 시장의 균형이 요구하는 만큼 이자율

이 급속하게 하락하는 것이 저지되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여기에 따라오는 낭비와 혼란은 국민 소득의 7과 2분의 1퍼센트를 넘지 않는다. 조금만 더 분별 있게 정책을 펴어도 그대로 지킬 수 있었을 파운드의 가치가 고전을 면치 못하다가 결국 1실링 6펜스가 하락하여 지금 18실링 6펜스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다.4) 하지만 이 18실링 6펜스도 5, 6년 전 1파운드의 외환 가치와 동일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1929년 영국의 실물 생산은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높았다. 우리의 외화 자산 또한 수입의 비용을 모두 지불하고도 신규 대외 투자로 쓸 수 있도록 남은 순 잉여가 작년에도 그 어느 나라보다 많았으며, 미국이 거두었던 순 잉여보다도 50%가 많았다. 그리고 비교의 문제로 보더라도 마찬가지다. 지금 많은 이들은 프랑스의 사정을 부러워하고 있다. 하지만 설령 우리가 국내의 임금 수준을 절반으로 깎아버리고, 국가 부채의 5분의 4에 대해 지불을 거부해 버리고, 우리의 잉여의 부를 6퍼센트 이상의 이자율로 대부하는 대신, 이자 없는 금(金)의 형태로 쌓아놓는다 해도 프랑스나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연 경제가 좋은 상태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현재 세계는 공황에 빠져 있으며 사방에서 사람들은 부족과 결핍으로 시달리고 있건만 다른 한편에서는 일자리 없이 놓고 있는 실업자가 넘쳐난다는 어마어마한 모순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이러한 우울한 모습에 시선을 빼앗긴 나머지 그 표면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물의 추세를 올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까닭이 있다. 지금 정반대로 대조되는 두 개의 비관주의가 횡행하며 온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있는데, 그 하나는 혁명가들의 비관주의로서 상황이 너무나 나쁘기 때문에 폭력 말고는 우리를 구해줄 것이 없다고 믿는 비관주의이며, 또 다른 하나는 반동 세력의 비관주의로서 현재 우리의 사회적 경제적 삶의 균형이 너무나 위태로운 상태이므로 무엇이든 실험 따위를 하는 위험한 짓을 일체 삼가야 한다는 비관주의이다. 나는 이 두 개의 비관주의 모두가 우리 시대가 지나기 전에 오류로 판명날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이 글의 목적은 가까운 미래나 현재를 검토하는 것이 아니다. 부담스러운 단기적 예측을 내놓기보다는 멀리 미래로 함께 상상의 나라를 펴 보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지금부터 1백년 후의 경제생활의 수준에 대해 어떻게 예측하는 것이 합리적일까? 그 시대를 살게 될 우리 손자손녀들의 경제생활에는 어떠한 가능성이 열리게 될까?

지구의 문명화된 중심 지역에 사는 보통 사람들의 생활수준으로 볼 때 우리에게 알려진 가장 오래된 시대 - 일단 기원전 2천년으로 해두자 - 로부터 18세기 초입까지의 기간에는 아주 큰 변화가 없었다. 물론 그 수준의 오르내림은 있었다. 전염병, 기근, 전쟁 등도 있었고, 그 사이사이에 번영의 황금시대가 오기도 했다. 하지만 지속적인 진보나 아주 크고 거친 변동은 없었다. 어떤 시대는 다른 시대에 비해 50퍼센트 정도까지 생활수준이 올라가기도 했었지만 그래도 그 폭이 100퍼센트를 넘지는 못했다. 이것이 기원후 1700년까지 4천년 동안 지속된 상태였다.

이렇게 진보의 속도가 느리고 또 아예 진보가 없었던 것은 두 개의 원인에 기인하는 일이었다. 우선 중요한 기술적 개선이 너무 없어서 오히려 눈에 띌 정도였으며, 자본 또한 축적되지 못했다는 것이 그것이다.

역사 이전 시대에서 비교적 근대에 이르기까지 중대한 기술적 발명들이 없었다는 것은 실로 주목할 만한 일이다. 근대가 막 시작될 무렵 우리 세계가 보유하고 있었던 것들 또 정말로 중요한 것들은 모두 이미 역사의 여명기부터 인류에게 알려져 있던 것들이었다. 언

어, 불은 물론이고 오늘날 우리가 기르는 가축들도 모두 그때 길들여진 동물들이며, 보리, 밀, 포도와 올리브, 쟁기, 바퀴, 배 젓는 노, 항해술, 가죽, 면화와 옷감, 벽돌, 그릇, 금과 은, 구리, 양철, 납 (철은 기원전 1000년 조금 전에 이 목록에 들어왔다), 은행, 국가 경영술, 수학, 천문학, 종교 등이 모두 역사의 여명기에 발명된 것들이다. 이것들이 언제 발명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예 남아있는 기록조차 없을 정도이다.

역사의 여명기보다 더 옛날 언젠가 (어쩌면 마지막 빙하기보다도 더 옛날이었을 수도 있다) 오늘날과 비견될 정도로 위대한 발명과 진보가 벌어졌던 시기가 있었을 것이 틀림없다. 하지만 기록이 남아 있는 역사 시대에는 이런 종류의 시대가 없었다.

나는 근대가 16세기에 시작된 자본의 축적과 동시에 시작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유를 여기에서 상술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자본 축적의 최초의 원인은 가격 수준의 상승에 있었다고 생각한다. 스페인이 신대륙에서 가져온 금은보화가 구대륙 전반으로 퍼지면서 이러한 가격 상승이 나타났고 또 그 가격 상승의 결과 이윤 또한 커지게 된 것이다. 그전 여러 세대에 걸쳐 잠든 채 사용되지 않고 있었던 복리 이자 계산법이 다시 사용되면서 자본의 축적 또한 부활하여 그 위력을 더욱 새롭게 발휘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 후 2백년 동안 이 복리 이자가 발휘한 위력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아찔하다.

이 점을 보여주기 위해 내가 고안한 숫자 계산을 들어보겠다. 현재 영국의 해외 투자는 약 40억 파운드로 추산된다. 이는 약 6과 1/2퍼센트의 이자율로 우리에게 소득을 낳아주고 있다. 이 중의 절반을 우리는 본국으로 송금하여 향유하며, 나머지 절반 즉 3과 1/4퍼센트는 외국에 그대로 묻어두어 복리 이자로 계속 불어나도록 한다. 대충 이런 종류의 일이 지난 250년간 계속되어 온 것이다.

왜 250년이라고 하느냐 하면, 나는 영국의 해외 투자의 시작이 프란시스 드레이크 (Francis Drake)가 1580년 스페인에서 보물을 약탈했던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해에 드레이크는 그의 배 [황금색 농어(Golden Hind)]에 엄청난 전리품을 가득 싣고 영국으로 돌아왔다. 이 탐험에 돈을 댔던 신디케이트에 엘리자베스 여왕 자신이 상당한 지분을 가진 주주이기도 했다. 여왕은 자신의 몫으로 돌아온 이익금으로 영국의 해외 채무를 모두 갚아버렸고, 왕실의 재정도 균형 상태로 돌렸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도 4만 파운드를 수중에 남길 수 있었다. 여왕은 이 돈을 다시 레반트 회사(Levant Company)에 투자하였고, 이 회사는 계속 번창해 나갔다. 이 레반트 회사의 이윤에서 다시 동인도 회사가 설립되었고, 이 동인도 회사라는 거대한 기업의 이윤이 그 이후에 벌어진 영국 해외 투자의 기초가 되었던 것이다. 우연인지는 몰라도 이 4만 파운드를 3 퍼센트의 복리 이자로 계산하여 그 이후의 여러 시점에서의 영국 해외 투자의 실제 액수와 비교해보면 비슷하게 맞아 떨어진다. 그리고 이 계산을 오늘날까지 끌어온다면 실제로 오늘날의 영국 해외 투자 액수로서 내가 앞에서 추산한 4십억 파운드 정도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드레이크가 1580년에 영국으로 벌어들인 돈 1파운드는 오늘날의 1십만 파운드로 불어난 셈이다. 복리 합계의 위력이 이토록 위대하다!

16세기에는 위대한 과학과 기술적 발명의 시대가 시작되었고 18세기부터는 이것이 누적적으로 점점 더 빠르게 발전하여 19세기 초가 되면 새로운 발명과 과학적 발견의 물결이 완전히 홍수를 이루고 만다. 석탄, 증기, 전기, 석유, 철강, 고무, 면화, 화학 산업, 자동 기계와 대량 생산 방법, 무선, 인쇄, 뉴턴, 다윈, 아인슈타인 등등 그 수많은 사건들과 인물들은 너무나 유명하고 익숙하여 굳이 열거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유럽과 미국의 평균적 생활수준은 이 기간 동안 4배로 증가하였다고 생각된다. 세계 인구가 엄청나게 증가하였고 따라서 이들이 갖추어야 할 집과 기계도 엄청나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자본의 성장은 그 전 어느 기간과 비교해 보아도 100배가 훨씬 넘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앞으로는 인구가 그리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할 이유도 없다.

만약 자본이 예를 들어 매년 2%씩 증가한다면 전 세계에서 자본으로 쓰이는 장비의 양은 20년 후에 반 정도 증가할 것이며, 100년이 지나면 7과 2분의 1배로 증가할 것이다. 이 수치의 크기를 가능하기 힘들다면, 가옥이나 교통수단 등과 같은 물질적 사물을 단위로 하여 생각해 보라.

이와 동시에 제조업과 교통수단에서의 기술적 개선 또한 지난 10년간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속도로 진전되었다. 미국에서 노동자 1인당 공장 생산량은 1919년에서 1925년까지 40%가 증가하였다. 유럽에서는 일시적인 장애가 발생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기에서도 기술적 효율성이 연간 복리로 1% 이상 증가하고 있다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혁명적 기술 진보가 주로 산업에 영향을 주어왔지만 조만간 농업도 이 공격을 맞게 되리라고 생각할만한 증거가 있다. 식량 생산 또한 이미 광업, 제조업, 교통 등에서 벌어진 것만큼 거대한 개선이 시작될 참나인지도 모른다. 실로 몇 년 되지 않아 - 우리 생전에 - 지금까지의 약 4분의 1정도의 인간 노력만으로 모든 농업, 제조업, 광업의 작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변화의 엄청난 속도 자체가 우리를 다치게 하고 또 실로 어려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진보의 최전선에 있지 않은 나라들이 상대적으로 더욱 고통을 당하고 있다.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새로운 질병의 이름은 아직 낯설지만 앞으로 몇 년간 대단히 자주 듣게 될 것이니, 그것은 **기술적 실업**이다. 이는 노동의 사용을 절약할 수단을 발견하는 속도가 노동의 새로운 용도를 발견하는 속도를 앞서버리는 데에서 기인하는 실업을 뜻한다.

하지만 이는 단지 일시적인 부적응의 기간일 뿐이다. 이 모든 것을 장기적으로 보면, **인류가 스스로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나는 이렇게 진보해 나가는 나라에서라면 1백년 후에는 지금의 생활수준보다 4배에서 8배 사이로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예견한다. 이는 지금 우리의 지식에 비추어보아도 전혀 놀라운 것이 아니다. 또 지금보다도 훨씬 더 큰 규모의 진보가 또 나타나지 말라는 법도 없는 것이다.

## II

그렇다면 논의를 위해서 1백년 후 우리 모두가 오늘날보다 경제적인 의미에서 평균 8배 더 잘 살게 된다고 가정해보자. 이렇게 가정하는 것이 놀라운 일일 이유는 전혀 없다.

물론 지금은 인간의 필요욕구가 충족이 불가능하도록 무한하다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인간의 필요욕구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절대적인 필요욕구로서, 이는 우리 옆의 동료 인간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든 우리가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절대적이다. 둘째는 상대적인 필요욕구로서, 이를 충족하게 되면 우리가 높아져서 동료 인간들보다 우월하다고 느끼게 해주는 것을 말한다. 이 두 번째 종류 즉 우월감에 대한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필요욕구는 실제로 충족이 불가능하게 무한하다. 사람들의 전반적 생활 수준이 올라간다고 해도 이 필요욕구의 수준은 항상 그보다 높을 것이니까. 그런데 절대적 필요욕구는 그렇지 않다. 이러한 시점은 아마도 조만간 오게 될 것이며, 그러한 시점에 도달했음을 인식하게 되면 우리는 그 즉시 남아돌게 되는 에너지를 모조리 비경제적 목적에 바치는 쪽을 더욱 원하게 될 것이다.

이제 여기에서 내가 내리게 된 결론을 이야기 하겠다. 아마도 이 결론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여러분의 상상력에 더욱 큰 충격으로 다가가게 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내가 내린 결론은 이렇하다. 앞으로 중대한 전쟁이나 인구 증가가 없다고 한다면, **경제적 문제**는 1백년 안으로 해결될 것이며 최소한 해결의 전망이 보이게 될 것이다. 즉, 미래에는 더 이상 경제적 문제가 **인류의 영구적 문제**가 아니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결론이 왜 생각할수록 충격적인 것이냐고 물으실 수도 있겠다. 이 결론이 충격적인 이유는 이렇하다. 미래 대신 과거 쪽으로 시선을 돌려보라. 경제적 문제 즉 생계를 해결하기 위한 투쟁이야말로 태초 이래 오늘날까지 인류의 가장 절박한 일차적 문제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인류뿐만이 아니다. 이 우주에 가장 원초적인 형태의 생명체가 등장한 이래 생물의 왕국 전체에 있어서 가장 절박한 일차적 문제는 바로 이 경제적 문제였던 것이다.

자연이 우리 마음 속 깊숙이 자리 잡은 모든 충동과 본능을 통하여 우리를 진화시켜온 목적이 바로 이 경제적 문제의 해결이었음이 분명하게 밝혀졌다. 그런데 만약 경제적 문제가 해결된다면 인류는 태초 이래 지금까지 삶을 영위해온 목적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다.

과연 이러한 상태가 인간에게 혜택을 가져다주는 것일까? 조금이라도 인생의 진정한 가치들을 믿는 이라면 이러한 전망이 최소한 혜택의 가능성만큼은 열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두려운 생각이 든다. 이루 헤아릴 수도 없는 무수한 세대에 걸쳐서 인간에게 기질로 길들여진 습관들과 본능들을 보통 사람들이 과연 다시 조정할 수 있을까. 이 모든 습관들 본능들을 단지 몇십 년 동안에 모두 내버리라는 명령을 받게 될 터인데 말이다.

오늘날의 언어를 쓰자면, 혹시 사회 전체에 전반적인 "신경 쇠약"이 벌어지게 되는 게 아닐까? 이미 오늘날에도 영국과 미국의 유복한 계급의 가정주부들 사이에서는 내가 말하는 종류의 신경 쇠약이 보편화되어 있어서 우리는 이미 맛보기로나마 이를 경험하였다. 이 여인들의 대다수는 부유한 덕에 전통적으로 그들에게 주어졌던 과제와 업무를 빼앗기고 말았다. 요리하고 청소하고 집을 고치고 하는 일들은 돈을 알뜰히 아껴야 한다는 동기가 주어진다면 재미있는 일이겠지만 그런 동기가 사라진다면 도무지 재미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그것 말고 딱히 재미난 일을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닌 상태이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 땀을 흘려야 하는 이들에게 여가 시간이라는 것은 항상 꿈꾸는 달콤함일 것이다 - 그것이 주어질 때까지는. 그런데 과연 여가가 주어진 다음에도 계속 그것이 달콤할까.

어느 파출부 할머니가 자신의 묘비명으로 쓴 글이 내려오고 있다.

슬퍼말아, 친구들아, 울지도 말아, 절대로 절대로

이제 나는 아무 일도 안 해도 되니까, 영원히 영원히

이것이 그녀가 꿈꾼 천국이였다. 여가 시간을 갈망하는 다른 사람들처럼 그녀도 그저 노래나 들으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를 상상하였다. 그녀의 시에 나오는 다음 연을 보자.

찬양과 아름다운 음악이 천국을 울릴 거야

하지만 내가 직접 노래를 부르는 일 따위는 절대 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인생을 그럭저럭 버텨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스스로 몸을 움직여 노래를 부를 생각과 힘이 있는 사람뿐이다. 그런데 우리 중 노래할 줄 아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는가!

인간은 이 세상에 창조된 이래 자신이 풀어야 할 진정 영구적인 문제와 처음으로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절박한 경제적 걱정에서 해방된 상황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과학과 복리 이자의 힘으로 얻게 된 여가를 어떻게 사용해야 지혜롭고 훌륭하고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악착같고 집요한 돈벌이꾼들은 우리를 경제적 풍요의 품으로 데려다 줄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풍요가 왔을 때에 막상 그것을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은 삶의 기술 자체를 생생하게 구현할 줄 알고 그것이 더욱 완벽해지도록 가꿀 줄 아는 사람들 그래서 생계 수단을 위해 자신을 팔지 않는 사람들일 것이다.

하지만 내 생각으로 어떤 나라나 민족도 아무 두려움 없이 여가와 풍요의 시대를 고대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즐길 줄은 모르고 그저 죽도록 일만 하도록 너무나 오랫동안 훈련받아왔기 때문이다. 별다른 재능이 없는 보통 사람으로서는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무얼 하며 시간을 보내야 하나가 실로 두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게다가 사회의 전통으로 보존되어온 습관이나 관습 또는 환경 등에서 뿌리 뽑힌 상태일 때는 더욱 그러하다. 오늘날 세계 어디서나 부유한 계급들이 벌이고 있는 행태나 그들이 기껏 성취랍시고 해놓은 것들을 보라! 실로 암울하다 아니할 수 없다. 이들은 우리 대신 저 약속된 땅을 먼저 보고 캠프를 마련한 이들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전위(前衛)라고 할 수 있는 이들이건만, 대부분 재난에 가까운 실패만 저질러왔으니까. 그래서 내가 보기에 자기에게 주어진 문제를 풀 수 있는 이들은 독립적인 소득을 가지지만 연고나 의무 등이 없는 이들일 듯하다.

나는 확신한다. 우리가 약간만 더 경험을 쌓으면 자연으로부터 얻을 이 새로운 전리품을 오늘날 부자들이 쓰고 있는 방식과는 아주 다르게 쓸 수 있을 것이며, 부자들이 계획하는 삶과는 아주 다른 계획으로 삶을 짜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아담이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이래 우리는 노동에 얽힌 원죄의식이 너무나 강했기에 누구든 무언가 일을 하지 않으면 마음속에 만족을 얻을 수가 없었다. 우리는 단지 의무와 과제와 지루한 일상으로 찌는 노동을 기꺼이 줄이는 것 뿐, 오늘날 부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스스로의 동기부여로 하고 싶어서 하게 될 것이다. 이것 말고도 해결책은 또 있다. 아직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는 남은 노동을 가급적 모든 사람들에게 분배하는 것이다. 하

지만 이는 경제적 강제로서가 아니라 되레 풍요를 분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분배하는 노동의 양이 세 시간 정도의 교대 시간 혹은 주당 15시간 정도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정도면 당분간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우리 대부분의 노동의 원죄 의식이라는 것도 하루 세 시간 정도 노동이면 충분히 달랠 수 있는 것이다!

다른 영역에서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야 한다. 부의 축적이 더 이상 큰 사회적 중요성을 갖지 못하게 되면 도덕률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벌어질 것이다. 지난 2백년간 인간의 몇 가지 가장 혐오스런 성질들을 최상의 미덕으로 모셔 놓은 사이비 도덕의 원칙이 우리를 짓눌러 왔거니와, 이제는 그런 사이비 도덕을 완전히 제거해 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이제 화폐적 동기라는 것의 진정한 가치를 감히 제대로 평가할 여유를 가지게 될 것이다. 화폐를 소유물로서 사랑하는 것 - 삶을 영위하고 향유할 수단으로서 돈을 사랑하는 것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 은 그 본질의 모습 그대로 인식될 것이다. 그러한 화폐의 사랑이란 상당히 구역질나고 소름끼치는 정신병이다. 인간에게는 반쯤 범죄적이고 또 반쯤 정신병리학적 성향들이 있어서 이를 보면 우리는 공포로 몸을 부르르 떨며 정신병 전문가들에게 넘겨버리게 된다. 화폐에 대한 사랑이란 바로 이런 것들 중 하나인 것이다. 지금 세상에서 부의 분배 그리고 경제적 보상 및 처벌의 분배를 좌우하는 사회적 관습들과 경제적 관행들 중에는 지독하게 구역질나고 정의롭지 못한 것들이 많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자본 축적을 촉진하는 데에 엄청나게 유용하다는 이유 하나로 악착같이 고수해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 마침내 우리들은 이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내팽개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물론 미래의 세상에도 무한한 합목적성을 동원하여 미친 듯이 부를 추구하는 자들이 여전히 많이 있을 것이다 - 딱히 그것 말고 할 일을 못 찾은 자들 말이다. 하지만 그 때가 되면 그렇지 않은 이들까지 이런 자들을 찬양하고 고무해야 할 의무는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자연은 거의 모든 인간에게 다른 정도의 “합목적성(purposiveness)”을 심어놓으셨다.<sup>1)</sup> 오늘날은 이것의 진정한 성격을 탐구하는 것이 별로 안전한 일이 못되지만, 그 때가 되면 우리는 왕성한 호기심으로 이 문제를 마음껏 탐구할 수 있을 것이다. 합목적성이란 우리가 우리 활동의 질적 수준이나 그를 통해 우리의 환경에 가져올 수 있는 직접적 결과보다는 그 활동이 먼 미래에 가져오게 될 결과에 더욱 관심을 갖는다는 것을 뜻한다. “합목적적인” 사람은 항상 자신의 활동에 대한 이해관계를 아득히 먼 미래에까지 뻗쳐 놓음으로써 불멸불사 - 물론 가짜이며 사람을 속이는 것뿐이다 - 를 확보하려고 발버둥 친다. 그 사람이 사랑하는 것은 자기가 기르는 고양이가 아니라 그 고양이가 낳은 새끼 고양이들이며, 사실상은 그 새끼 고양이들도 아니라 그 새끼들의 새끼 고양이들이며... 이런 식으로 그 사랑은 고양이 왕국의 종말로까지 뻗쳐진다. 그 사람에게는 잼이 잼이 되는 것도 오늘 당장 먹어버릴 물건이 아니라 상자 째로 남겨 내일을 위해 쟁여 두는 물건이 되는 경우뿐이다. 이렇게 자신의 잼을 항상 미래로 넘김을 통해 그 사람은 지금 당장 잼을 꿀이고 있는 자신의 활동에

1) 목적을 위해서 여러 성질과 활동이 그 수단으로서 위치를 부여받고 정연하게 배치되는 상태. 칸트(Immanuel Kant)는 그의 [판단력 비판]에서 자연은 스스로의 운행이라는 목적을 위해 자신의 내부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게 일정한 목적성을 부여하였다는 명제를 전제로 하여, 예술이란 작품에 등장하는 모든 요소들을 아름다움이라는 목적에 맞게 배치하는 합목적성의 극치이지만 그 작품 자체는 아무런 목적도 갖지 않은 것이라는 점에서 자연을 닮은 것이며, 그런 점에서 ‘목적 없는 합목적성’이라고 부른다. 이 문맥에서 케인즈는 이와는 전혀 다른 의미에서 합목적성이라는 말을 쓰고 있음에 주목하라. 모든 것을 미래 수익 극대화나 그를 통한 ‘영생불사’의 환상이라는 ‘목적’을 쫓는 수단으로서만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에 합치하는 한에서만 존재를 인정한다는 의미로 쓰고 있는 것이다.

다가 아득한 미래라는 불사불멸성을 부여하려고 분투하는 것이다.

[실비와 브루노(Sylvie and Bruno)]에<sup>2)</sup> 나오는 교수가 있다.

“양복장이입니다. 선생님 계산서를 가져왔습니다.” 문 밖에서 온순한 목소리가 들렸다.

“아, 이거 금방 처리할 수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다오,” 그 교수는 아이들에게 말했다. “반갑네. 올해는 얼마나 나왔나?” 그 사이에 양복장은 이미 방 안으로 들어와 있었다.

“저, 지난 많은 해에 걸쳐서 액수가 계속 곱빼기로 늘어났어요, 아시잖아요.” 양복장은 조금 불멘소리로 대답했다. “이제는 돈을 주셔야겠어요. 모두 2천 파운드입니다!”

“음, 별거 아니군!” 교수는 아무렇게나 뇌까리며 호주머니를 더듬었다. 마치 그 정도 돈은 항상 주머니에 가지고 다니는 것처럼. “하지만 만약 그 돈을 지금 안 받고 1년만 더 기다리면 4천 파운드가 될 텐데, 그게 낫지 않겠나? 그 돈이면 부자가 될 텐데! 원한다면 왕도 될 수 있을 거야!”

“왕까지야 뭘요...” 양복장은 생각에 잠겨 말했다. “하지만 돈이 막 눈 앞에 보이는 것 같네요! 저...기다리죠 뭐, 그럼 - ”

“그럼, 그래야지!” 교수가 말했다. “역시 자네는 머리가 좋아. 자 그럼 잘 가게나.”

“그 4천 파운드를 갚아야 할 날이 올까요?” 그 빗쟁이가 떠나면서 문을 닫자 실비가 물었다.

“을 퍽이 없지, 애야!” 교수는 딱 잘라서 대답했다. “그 사람은 죽는 날까지 계속 액수를 두 배로 올릴 거야. 1년 기다려서 돈이 두 배가 된다면 그건 항상 기다릴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잖니!”

인류는 불사불멸의 약속을 가슴에 품고 이를 본질로 삼아 종교까지 만드는 등 무슨 짓이든 해온 생물이다. 따라서 그 인류가 이번에는 복리 계산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해 무슨 짓이든 불사했으며 또 이 복리 계산이라는 가장 합목적적인 인간 제도를 각별히 사랑했다는 것도 우연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종교와 전통적 가치의 가장 확고하고도 확실한 원칙들 몇 가지로 복귀하게 될 것이다. 즉 탐욕은 악덕이며, 고리대금업은 범죄이며, 돈에 대한 사랑은 구역질나는 것이며, 내일 걱정 따위는 잊어버리는 사람이야말로 미덕과 지혜의 길을 가장 충실하게 걷는 이라는 것이다. 이제 다시 한 번 우리는 수단보다 목적을 높게 평가할 것이며, 유용한 것보다는 선한 것을 더욱 좋아하게 될 것이다. 세월과 나날을 고결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이들, 세상 만물 어떤 것이든 곧바로 즐길 줄 아는 유쾌한 사람들, 실을 찾지도 길쌈을 하지도 않으면서 한 없이 아름다운 저 들판의 백합꽃을 명예롭게 여기게 될 것이다.<sup>2)</sup>

2) 6장 26절-30절. 마태복음 6장은 재물에 대한 예수의 가르침을 담고 있으며, 이것이 케인즈가 지금 상기하고 있는 바의 ‘종교와 전통적 가치’와 조응한다.



하지만 조심하라! 이 모든 것들은 아직 오지 않았다. 아무래도 최소한 앞으로 1백년 간은 우리 스스로와 모든 이들을 속여서 아름다운 것이 흉하고 흉한 것이 아름답다고 믿도록 만들어야 한다. 흉한 것이 유용하고 아름다운 것이 유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탐욕과 고리대와 주판알 튕기기 등을 우리는 아직 좀 더 오랫동안 신으로 모셔야만 한다. 이것들을 계속 따라가야만 우리의 경제적 결핍이라는 긴 터널의 끝이 보이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아주 멀지 않은 미래에 전체 인류의 물질적 환경에 있어서 지금까지 있었던 가장 거대한 변화가 올 것이라고 기대한다. 하지만 물론 이러한 변화는 파국이 아니라 점진적인 형태로 벌어질 것이다. 사실상 이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앞으로 벌어질 일은 단지 경제적 결핍의 문제에서 해방된 계급과 집단이 점점 더 커지고 많아지는 것 뿐이다. 이러한 상태가 아주 일반적인 것이 되어서 이웃과 이웃 사이의 의무의 성격까지 변할 만큼 이 될 때에야 비로소 결정적인 차이가 현실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개인의 삶에 있어서 합목적적일 필요가 없다고 해도 당분간 남들에 대해서는 경제적으로 합목적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합리적인 기간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러한 경제적 천국의 목적지에 도달하는 속도는 다음의 네 가지로 결정된다. 인구에 대한 우리의 통제력, 전쟁과 내란을 피하겠다는 우리의 결의, 과학이 다루어야 할 문제들을 온전히 과학에 맡기겠다는 우리의 용의, 우리의 생산과 소비 사이의 마진으로 고정되는 자본 축적률. 이 중 앞의 세 가지가 제대로 지켜진다면 마지막 것은 저절로 알아서 달성될 것이다.

그러는 동안에도 우리의 운명을 위해 조금씩 준비를 해두는 게 나쁠 것이 없다. 삶을 즐기는 여러 기술들도 익히고 또 합목적성을 가진 여러 다양한 활동들을 장려하고 또 실험해보는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다. 경제적 문제의 중요성을 필요 이상으로 과장하지 말자. 그래서 더욱 중요하고 더욱 영구적인 의미를 갖는 문제들을 소위 경제적인 필요라는 것들 때문에 희생시키는 짓을 삼가자. 경제적 문제는 그저 전문가들이 알아서 할 문제에 불과하다. 치아 건강이 치과 의사들이 알아서 할 문제인 것과 같은 식으로 말이다. 경제학자들이 그저 치과 의사들이나 같은 수준과 의미에서 겸손하고 유능한 사람들이라고 여겨질 수만 있다면 정말 근사한 일일 텐데!

---

1) 1971 이전의 영국 옛 화폐 제도에서 1파운드는 20실링이며 1실링은 12펜스였다.  
2)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지은 루이스 캐롤(Lewis Carroll)의 소설.